

##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정현\* · 고선영\*\*1) · 이윤정\*\*\*

광명 가림중학교\* · 인천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

### The Influential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School Dress Code Compliance

Lee, Jung-Hyun\* · Ko, Sunyoung\*\*1) · Lee, Yoon-Jung\*\*\*

*GwangMyoung Karim Middle School\* · University of Incheon\*\* ·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identifying the influential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dress code complianc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trength and importance of dress codes and dress code compli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ress code compliance and creativity,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reliability tests, multiple regressions, and t-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866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six Co-E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students perceived the school dress codes to be stronger and more important, they were more likely to comply to the dress codes. Second, compared to the low-compliance group, the high-compliance group had higher self-esteem and creativity. Third, compared to the low-compliance group, the high-compliance group showed better adaptation to their teachers, classes, and school rules. However, the two group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heir adaptation to peer groups.

**Key words:** 외모규제, 강도지각, 중요도지각, 준수도,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 school dress codes, perception of dress code strengths, perception of dress code importance, dress code compliance level, self-esteem, creativity, school adaptation

---

1) 교신저자: Ko, Sunyoung, Th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Incheon, 12-1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840, Republic of Korea  
Tel: 032-835-8260, Fax: 032-835-0765, E-mail: barnabas511@chol.com

2) 본 논문은 이정현의 2006년도 박사학위논문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하여 작성됨.

## I. 서론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회 집단 내에서 통제받고 억압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집단의 규제와 억압에 대해 반발하여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현택수, 2000).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서울시, 광주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사회의 분위기도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에 대한 규제 위반에 대해 징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외모를 규제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적발될 경우 바지폭이나 스커트 길이를 늘려 검사받고 그 후 바로 다시 줄여 입는 등 교복을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하고, 심지어는 교복을 한 벌 더 준비하여 교문 통과 후 바로 교내에서 갈아입는 등 심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외모규범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규제의 목적은 외적인 규율을 토대로 내적인 자기통제를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한준상, 이춘화, 유옥경, 2000) 의복과 외모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위은하, 권유민, 2009).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감과 관계되는데, 학교에서의 교복, 머리, 신발 등의 외모 활동에 대한 규제로 개성 표현에 제약이 심할 때 좌절감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규범을 배우며 미래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습득하므로, 학교에서의 외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교육적 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외모규제에 관한 찬반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외모규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한 인식이 외모규제에 대한 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압적 외모규제가 학생들의 외모규범 준수에 효과가 있는지 혹은 학생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외모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가 외모규범 준수에 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모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외모규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라 자기존중감 및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들의 외모규제 준수도와 학교적응과는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존중감과 창의성 배양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며 학교적응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들 변수와 외모규제 준수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외모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지를 판단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특징과 외모행동

청소년기는 유아기 이후 가장 급격한 신체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신체 골격도 변화한다. 또한 여드름이 나는 등 외모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신체 변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이 요구되기 때문에(한준상 외, 2000),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체격과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이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사춘기가 시작되므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의복이나 외모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리하여 신체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의복이나 신발, 머리형, 화장, 가

방, 액세서리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며 개성적인 외모를 표현하고자 한다(김정애, 김용숙, 2002). 김양진(1992)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하였고, Brooks-Gunn 과 Warren(1988)은 자신을 신체적으로 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보다 좋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에 있어 외모는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이외의 사람 특히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중요시된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규율이나 부모의 의견 보다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유행이나, 친구들의 승인 등이 더 중요시된다. 타인의 인정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이 제시하는 의복과 외모의 기준이 모델이 되고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기 원하는 등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래집단에 수용될 만한 의복과 외모를 이용하기도 한다.

## 2.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와 청소년들의 인식

학교의 외모규제는 교육규제라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한 측면으로 학생들에게 학교가 정한 가치나 규범에 순응하도록 복장이나 두발 등 외모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규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에 순응하도록 하여 일탈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을 형성하고 학생들로 학습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규제는 외적인 규율을 토대로 학생들의 내적 규율을 발달시켜 내적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모규제는 학생의 인성을 바람직하게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지도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즉, 두발과 복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성에 영향을 미쳐 두발이나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면 정신자체가 흐려지고 마음이 어수선하여 행동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김삼량, 2000). 장덕삼(2000)은 교육 경험상

두발과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실패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모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단정한 두발과 복장은 모범생이고 불량한 두발과 복장은 문제아라는 주장은 개인이 경험한 몇몇 사례일 뿐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수광, 2000). 외모규제는 교육의 최종 목표인 학업 및 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이수광, 2000), 인간은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개성에 맞추어 가꾸고 다듬으며 의복의 색채나 디자인 기타 여러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김병성, 1982)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학부모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모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외모규제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은 교복을 통한 통제이다. 획일화된 교복은 자신의 개성과 심미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의복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이혜주, 2006;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1997; 이애경, 한영숙, 이혜자, 2006). 획일화된 교복에 불만족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복변형이라는 독특한 의복행동이 유행하고 있으며 위은하, 권유민(2009)년 조사에 의하면 여고생의 85%가 교복변형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5%의 여학생들이 실제 교복변형 행동을 하고 있었고 변형교복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는 교복 변형뿐만 아니라 교칙위반 의복, 머리에 무스나 스프레이 사용, 파마나 염색 등 머리변형, 장신구 착용, 교칙위반 신발, 교칙위반 양말 등이 있는데(이명희, 1999), 이러한 외모규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이명희, 1999). 외모규제에 대한 반발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1999).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외모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 위주의 외적강제와 규범의 내면화에서 비롯된 내부 통제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 3. 외모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자기존중감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자기존중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기존중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다. 낮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은 불안과 우울증, 부정적 정서 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을 나타낸다(Rosenberg, 1986). 자기존중감의 학교 교육에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학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존중감을 키우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외모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으나(위은하, 권유민, 2009), 정준교와 이선경(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외모규범에 벗어나는 복장을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착용한다. 학생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학교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대응행동의 하나이며(정준교, 2000), 또래집단에 동조하고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 2002), 교사 이외의 본인과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동이다(정용교, 1998). 외모규범의 이탈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인 학생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가벼운 비행이며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학교 내에서는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실험적 비행에 속한다(정준교, 이선경, 1999).

일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고(안차수, 2008),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보도(Savoie, 2006)되었다. 또한 안현의(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존중감과 사회순응성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규범에 대한 순응성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외모는 자기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모를 활용하여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외모규범에 대한 준수와 정적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외모규범도 기타 다른 규범

과 다르지 않은 규범이며, 이에 대한 일탈이 자기통제력 상실과 관련된다는 외모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외모규범에 대한 준수와 자기존중감이 부적상관을 가지거나 관련이 없다면 외모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학교 외모규제의 효과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 2) 창의성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창의성은 유연성,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예기치 못한 문제에 가까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데 점점 더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창의적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어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진다. 따라서 21세기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외모규범과 창의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몇몇 연구에서 창의성은 외모규범 준수와 부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교와 이선경(1999)은 복장변형 행동집단의 창의성 수준이 비변형집단보다 높다고 보고하였고, 정준교(2000)는 창의성은 개성, 자율성 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여 획일화된 외모규제가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준교(2002)는 인권이 보장된 학교일 수록 학생들의 창의성 수준이 높고 두발변형이 많다고 하였다. 외모를 통한 자기표현은 창의성을 훈련하는 하나의 미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모규제는 이러한 창의적 미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외모규제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외모규제 준수와 학교적응

학교는 교육의 장소로 학생들에게 ‘학생다운’ 일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도록 복장과 관련된 규범을 가진다(이

경아, 1983). 학교의 복장규제는 학생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생 스스로가 규범을 마련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의 외모규제에는 강제이발이나 벌점 등이 동반되어 학생과 학교와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가시적 결과로 외모규제에 대해 학생들이 불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의 외모규제는 학생들이 행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라는 사회집단에서 외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집단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고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유유희(1994)는 학교적응을 교사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교사적응은 학생이 교사를 따르고 존경하며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로 학교생활이 긍정적인 경우를, 친구적응은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친구에 대한 관심,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업적응은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규칙적응은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적응은 학업성적과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고(민병수, 1991; 양민철, 1995; 최순복, 1985),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외모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기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다양한 외모규제 규정들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친구들이나 교사의 경우에 외모규범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외모규범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모규범의 준수는 학교의 기타 규범과는 달리 교사와 또래집단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정용

교, 1998)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으로 구분하여 외모규범 준수가 각각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한 인식이 외모규제에 대한 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창의성, 자기존중감에 따라 외모규제 준수도가 달라지는지, 또한 청소년들의 외모규제 준수도와 학교적응과는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 창의성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청소년들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2. 측정도구

설문지는 외모규제 강도지각,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 외모규제 준수도,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 그리고 인구통계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6명의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얻어진 서술형 응답과 중고등학교의 용의복장 규율을 참고하여 50개의 외모관련 규제항목을 추출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외모규제 유형별 항목

외모규제 유형	항목
(1)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의 규제	브리지, 염색 금지; 파마, 코팅머리 금지; 삭발, 핑크머리 금지; 가발, 모자 착용 금지; 머리 장식 금지; 왁스, 무스, 젤 금지; 머리길이 제한, 단정한 머리 권장; 유행머리 금지; 색 머리핀과 끈 금지; 드라이, 고데기 금지
(2) 겉옷의 규제	화려한 외투 금지; 외투길이 관련규정; 겉옷 관련규정
(3) 교복이외의 소품규제	교표, 명찰 착용; 실내 외투, 목도리 금지; 넥타이, 리본, 단추부착, 현장학습 시 교표부착; 유행성 벨트 금지; 장신구 착용 금지
(4) 교복규정의 착용 규제	교복변형 금지; 교복과 체육복 혼용 금지; 상의, 조끼 착용; 플라티 색깔 제한; 셔츠 착용 관련규정; 합합바지 금지; 풀바지 착용금지; 속옷 착용 관련규정; 색깔 있는 속옷금지; 어른용 사치품 금지; 양말관련 항목; 성인용 양말 금지; 원색 양말 금지
(5) 가방 및 신발 규제	성인용 신발 금지; 화려한 가방 금지; 성인용 가방 금지; 보조가방 관련규정; 고가의 가방 금지; 학생용 단화 항목; 화려한 색 신발 금지; 브랜드 운동화 제한; 운동화 장식 금지
(6) 화장품 사용 규제	서클렌즈 금지; 눈썹변형 금지; 매니큐어 금지; 피어싱, 문신 금지; 화장품 휴대 금지; 향수의 사용 금지; 컬러로션 금지; 립글로스 금지

외모규제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규제나 처벌의 정도” 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1) 매우 약하다 (2) 약하다 (3) 보통이다 (4) 강하다 (5) 매우 강하다는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외모규제 강도 50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7로 나타나 문항간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모규제 중요도는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아주 중요하다는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외모규제 중요도 50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7로 나타나 문항간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규제 준수도는 “이 규정에 대한 나의 규칙 준수 정도” 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1) 항상 지키지 않는다 (2) 지키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지키는 편이다 (5) 항상 지킨다 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외모규제 준수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8로 문항간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은 자기존중감 척도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1965)의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자아긍정 5문항, 자아부정 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부정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였다. 자기존중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82로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만족시켰다.

창의성은 최종인(1995)의 창의성 척도 9문항 중 중고등학생에게 적용가능한 5문항을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모든 문제를 매우 혁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나는 기존의 방식이나 도구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거의 맨 처음 아이디어를 낸다’, ‘나는 친구들과로부터 위트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과업완수의 의지가 높다’ 이다. 5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04 이었다.

학교적응은 유윤희(1994)가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유윤희(1994)의 학교적응 척도는 교사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의 각각 8문항으로 이루어져 전체 32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사적응의 Cronbach's  $\alpha$  값은 .741, 친구적응, .834, 수업적응, .604, 규칙적응, .747로 만족할 만한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그 외 학생들의 성별, 학년, 거주 지역, 부모 총수입, 부모 직업, 용돈, 성적 등의 인구통계문항이 측정되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걸쳐 2005년 8월 30일에서 9월 15일까지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남녀공학 고등학교 3개교씩 총 6개 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1,00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866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중회 귀분석, t-검정으로 분석되었다.

4.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남학생의 비율은 47.3%, 여학생은 52.7% 이었으며, 1학년이 45.4%, 2학년이 54.6% 이었다. 그리고 강남지역 학생이 53%, 강북 지역 학생이 47%였다. 부모님의 월간 총수입 400만원 미만이 52.2%이며, 한달 용돈은 10만 원 이하가 82.2%이고, 성적은 중상위권 이상이 53.8%이다. 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60.2%, 모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44%, 부친의 직업은 전문직 14.2%, 관리직 21.9%, 전문기술직 6.2%, 사무직 16.4%, 자영업인 33%, 생산기능직 5.2%, 판매서비스직 2.3% 이다. 모친의 직업은 전문직 3.3%, 관리직 2.7%, 전문기술직 4.8%, 사무직 6.9%, 자영업인 19.1%, 생산기능직 2.0%, 판매서비스직 5.8%, 주부 55.4%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을 독립변수로 외모규제 준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과 같이 외모규제 강도 지각,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은 외모규제 준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문검열이나 벌점 등의 외모규제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강도가 클수록 외모규제 준수도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모규제에 대한 내면화를 의미하는 학생들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효과도 정적이었다. 특히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beta$ 값이 강도 지각의  $\beta$ 값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규제의 내면화를 통한 자기통제가 외적 강제에 비하여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모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에게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외모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2. 학교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른 자기존중감, 창의성의 차이

학교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른 자기존중감,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먼저 외모규제 준수도의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3.46 이상이면 외모규제 준수도 고집단으로 3.46 미만이면 외모규제 준수도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외모규제 준수도 고집단은 437명, 외모규제 준수도 저집단은 426명이었다.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라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t=3.85, p<.001$ ;  $t=3.02, p<.01$ ).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모규제에 준수도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의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i>t</i>	$R^2$	<i>F</i>
외모규제 준수도	상수		16.60***		
	외모규제 강도 지각	0.13	3.80***	0.08	37.93***
	외모규제 중요도지각	0.27	8.23***		

주: \*\*\* $p<.001$

〈표 3〉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른 자기존중감, 창의성의 차이

독립변수	외모규제 준수도 고집단 (n=437)	외모규제 준수도 저집단 (n=426)	t
자기존중감	3.75	3.61	3.85***
창의성	3.19	3.02	2.78**

\*\* $p < .01$ , \*\*\* $p < .001$ 

외모규제와 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어왔고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의 교육적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 및 창의성과 외모규제 준수도와의 관계를 실증하여 외모규제 관련 논란을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외모규제가 사소하고 가벼운 비행이기는 하지만 이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으로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은 학생이 자기 통제력이 있어 학교의 외모규범을 적절히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외모규범 준수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는 복장변형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성이 높다는 정준교, 이선경(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3. 학교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학교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라 교사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적응( $t=2.75$ ,  $p < .01$ ), 수업적응( $t=3.88$ ,  $p < .001$ ), 규칙적응( $t=6.68$ ,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았는데 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유의수준을 10%로 했을 때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친구적응을 제외한 모든 학교적응의 하위범주들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롭게 행동하며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정아(1997)는 일탈집단이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의복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외모규범 준수는 친구적응과 부적관계를 나타냈으며

〈표 4〉 외모규제 준수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독립변수	외모규제 준수도 고집단 (n=437)	외모규제 준수도 저집단 (n=426)	t
교사적응	2.96	2.87	2.75**
친구적응	3.65	3.73	-1.74
수업적응	3.25	3.11	3.88***
규칙적응	3.24	2.97	6.68***

\*\*  $p < .01$ , \*\*\*  $p < .001$

유의수준을 10%로 하였을 때 유의하였는데, 이는 외모규범에 대한 일탈은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행동이라는 정용교(199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외모규범에 대한 일탈은 비행집단이나 일탈집단에서만 국한된 행동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만연한, 딱딱한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행동의 하나라는 정준교(2000)의 주장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V. 결론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모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 있는 외모규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먼저 외모규제에 대한 외적강제로서 외모규제 강도지각과 외모규범의 내면화로서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와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졌다.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강압적인 외모규제가 학생들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회귀계수가 외모규제 강도 지각의 회귀계수보다 커서, 외모규범의 중요도 지각을 통한 자기통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외모규제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외모규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외모규제를 준수하게 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규제가 사소한 비행이기는 하지만 이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라는 집단의 규범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청소년기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시되고 외모나 의복에서 또래집단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외모규제를 준수하는 학생들이 또래집단에서 배척당한다면 외모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학교의 외부규제와 학생의 내부규제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의 외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의 외모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외적규제의 강도도 효과를 가지나 외모규범의 내면화를 통해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 창의성,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이 높았는데 이는 외모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의 주장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학교의 외모규제가 사소한 일탈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학생들에게서 학교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적절한 외모규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외모규제 압력을 학생들이 지각하는 외모규제 강도로 측정하였는데 학생들의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실제로 가해지는 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서울의 특정 학교의 학생들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학생 및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창의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복변형 집단이 비변형 집단에 비해 창의성이 높다는 정준교, 이선경(1999)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외모규범 준수와 창의성과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서울 및 대도시와 소도시 및 농어촌 학생들 간에 외모규범에 대한 인식과 준수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외모규범이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내면화되는 지에 관한 질적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병성 (1982). 한국교육을 생각한다(세계교육의 흐름 속에서): 자율화와 학생지도. **교육개발**, 4(5), 통권 20호.
- 김삼량 (2000). 두발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새교육**, 12월호, 106-110
- 김양진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김용숙 (2002).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4(1), 55-73.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치수 (2008). 초등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예방 프로그램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8(3), 347-380.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양민철 (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은하, 권유민 (2009). 신체이미지와 교복변형 행동 연구: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10), 73-85.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아 (1983). **고교생의 적응에 관한 가치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희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호, 143-158.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를학회지**, 21(2), 383-395.
- 이수광 (2000). ‘두발자유화’ 주장과 ‘지금 이곳’의 학교현실. **새교육**, 12월호, 100-105.
- 이애경, 한영숙, 이해자 (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33-148.
- 이혜주 (2006). 남자 중, 고등학생의 교복치수 맞음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1), 48-63.
- 장덕삼 (2000). 학생 두발문제에 대한 제언. **새교육**, 12월호, 111-115.
- 정용교 (1998). 영상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형성. **한국청소년 연구**, 28, 49-67.
- 정준교, 이선경 (1999). 복장변형 행동의 긍정적 심리효과: 창의성, 의상심미성, 개성, 자기효능감. **청소년학 연구**, 6(2), 145-175.
- 정준교 (2000). 창의성, 개성, 학업성적, 징계경험 및 복장변형행동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7(1), 31-68.
- 정준교 (2002). 인권지향적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복장변형 행동. **청소년학 연구**, 9(1), 141-165.
- 최순복 (1985). **고교생의 지능, 학업성취와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인 (1995). **집단창의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3-226.
- 허정아 (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택수 (2000).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학교문화 교육-옷 입기와 유행의 교육. **마당21**(11).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 (2002). 남녀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를산업학회지**, 4 (3), 243-247.
- Brooks-Gunn, J. & Warren, M. P. (1988).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in 9 to 11 year-old girls. *Child Development*, 59, 161-16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voie, J. (2006). Youth self-reported delinquency, Toronto. *Statistics Canada*, 27(6), 1-19.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pp. 107-135. Hillsdale, NJ: Erlbaum.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대립되고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모규제의 강도 지각과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와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866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회귀계수가 외모규제 강도 지각의 회귀계수보다 커서, 외모규제의 중요도 지각을 통한 자기통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라는 집단의 규범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3월 22일